

멕시코의 페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강경희(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I. 서론
- II.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낙태법 현황
- III.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낙태 쟁점의 등장과 발전
 - III.1.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낙태합법화 운동
 - III.2. '자발적 모성' 권리로서 낙태합법화 운동
- IV. 국가의 공공정책 차원에서 낙태 쟁점의 수용
 - IV.1. '빠울리나(Paulina)' 사건과 낙태논쟁의 촉발
 - IV.2. 2000년과 2003년의 멕시코시티 낙태법 개정
 - IV.3. 2007년 낙태법 개정안 통과
- V. 결론: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I. 서론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2007년 4월 24일, 낙태합법화·비범죄화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멕시코는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교도이고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발언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톨릭교회가 로마교황청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다(Ávila 2007).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멕시코시티 시의회의 낙태합

* Kyeong-Hee Kang(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khkang625@cheju.ac.kr), "El feminismo mexicano ante la política del aborto: El significado de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la Ciudad de México".

법화·비범죄화 승인은 멕시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구국가들의 낙태정책은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정책의 하위영역에서 다뤄진다. 재생산권리정책이란 1960년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낙태합법화 및 입법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피임, 낙태, 재생산과학기술¹⁾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재생산권리정책 이외에도 낙태정책은 국가의 가족계획 및 산아제한정책의 차원에서 추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낙태정책은 여성 권리의 증진보다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통제가 주요 목적인 경향이 있다(Mazur 2002, 138-139).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낙태정책은 국가도 교회도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서구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초월적 존재의 의지가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의 다원성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역할도 여성의 낙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모든 여성이 공공병원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낙태행위는 일부 국가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엄격한 제약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가톨릭교회와 로마교황청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낙태행위는 사회문화적 비난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낙태의 합법화·입법화 문제는 가톨릭교회의 반발을 야기해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과문되기 두려워하는 가톨릭 기반의 의원들로 인해 정치

1) 재생산과학기술정책(reproductive technology policies)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은 정부지원 하에 진행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이 출산 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시험관아기 기술이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다 (Mazur 2002, 139).

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어렵다(Lamas 2003, 158-159).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07년 멕시코시티 시의회의 낙태합법화·비범죄화 결정은 멕시코의 31개 주와 연방정부뿐 아니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낙태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은 페미니즘이론의 틀 내에서 부분적 소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²⁾ 서구국가들에서조차 낙태에 대한 연구는 상호 대립되는 다양한 관점들로 인해 복잡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서구에서 지난 200여 년 동안의 낙태 논의는 여성의 문제로 정의되는 페미니스트 방식, 범죄행위로 정의되는 범죄적 방식, 의료인의 행위 규제와 관련된 의료적 방식, 태아생명이라는 견지로 이해되는 도덕적 방식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1960년대 낙태논의는 의료인과 온건개혁가들이 주도하며 특별사안에 한해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료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 들어 제2기 페미니스트운동의 도래와 더불어 낙태논의는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페미니스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여성낙태권 반대론자들은 1980년대 들어 태아생명권을 내세우며 낙태의 공식적 불법화를 주장해왔다(Mazur 2002, 140-141).

이와 같은 서구국가들의 낙태논의와 낙태합법화 운동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대부분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행위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종교적·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비밀스런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상해를 입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의 여성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멕시코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의 페미니스트운동과 여성정책이 2007년 멕시코시티 낙

2) 국내의 경우, 페미니즘이론의 틀 내에서 라틴아메리카 낙태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순주(2003a; 2003b; 2004), 강경희(2008a; 2008b) 등이 있음.

태합법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낙태법 현황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낙태 쟁점의 등장과 발전을 1970년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낙태합법화 운동과 1980년대 이후 ‘자발적 모성’ 권리로서 낙태합법화 운동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것이다. IV장에서는 국가의 공공정책 차원에서 낙태 쟁점이 수용되는 과정과 특징을 ‘빠올리나’ 사건에서 촉발된 멕시코의 낙태논쟁, 2000년과 2003년 멕시코시티의 낙태법 개정, 2007년 멕시코시티의 낙태법 개정안 통과 순으로 살펴본 후, 결론에서는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II.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낙태법 현황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93개 UN 가입국 가운데 97%가 최소한 산모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료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치료적 낙태는 국가의 문화적·종교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치료적 낙태조차 금지하는 국가들로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필리핀, 소말리아, 바티칸 등 6개국을 꼽을 수 있다(Bengoetxea and Gabe 2007). 이 가운데 3개국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라틴아메리카는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칠레는 통치세력이 가톨릭교회와 긴밀한 정치적 제휴를 맺음에 따라 낙태의 원천적 금지 국가가 되었다(Peirce 2007). 칠레의 가톨릭교회는 군사정권 시기 동안 인권의 수호자로 명성을 얻었고, 민주화 이후 지배연합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정부와 정치적 제휴를 형성했다. 더욱이 오랜 칠레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혼, 낙태, 동성결혼을 수용하지 않는 보수주의 세력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낙태의 원천적 금지 결정을 더욱 확고

하게 만들었다(Franco 2003, 39). 니카라과는 1893년 이후 최근까지 형법 165조에 의해 “산모 생명이 위협하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인 경우, 성폭력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 한해 치료적 낙태를 허용해 왔었다. 그러나 니카라과 국회가 2007년 9월 13일, 형법 165조의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 낙태시술을 받은 모든 여성과 시술한 모든 의사는 4-8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Bengoetxea and Gabe 2007). 형법 165조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정당은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제한자유당(PLC: Partido Liberal Constitucionalista), 니카라과자유연맹(ALN: Alianza Liberal Nicaragüense) 등이었다. 이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세 명의 의원은 산디니스타회복운동(MRS: Movimiento Renovador Sandinistas) 소속이었다(Casas 2008, 30).³⁾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의 자발적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가이아나 등 세 국가에 불과하다. 그 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발견된 경우, 산모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병원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적절한 시기 안에 시술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은 모든 유형의 낙태를 사회적 죄악과 금기로 취급하는 가톨릭교회와 보수주의 세력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Casas 2008, 4).

멕시코는 1세기 전 혁명정권의 성립으로 가톨릭교회와 국가 간 정교분리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진전된 낙태법을 가지고 있다(Lamas 2003, 142).

3) 니카라과 의회의 형법 165조 폐지 결정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들은 니카라과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니카라과는 사춘기여성의 27%가 임신 경험을 갖고 있고, 모성사망의 30%가 19세 이하의 여성이며, 신생아의 1/3 가량이 11-15세 소녀들로부터 출생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카라과 의회가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조차 낙태를 불허하는 법 개정을 승인한 일은 니카라과 여성의 이러한 현실을 묵과한 결과라는 것이다(Bengoetxea and Gabe 2007).

1931년에 성폭력으로 임신된 경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제정된 후, 멕시코시티(연방구)와 31개 주들은 각각 낙태가 처벌되지 않는 근거들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낙태가 허용되는 근거들로는 첫째, 임신이 여성의 비자발적 행위의 결과이거나 동의하지 않은 인공수정일 경우, 둘째, 임신이 여성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일 경우, 셋째, 경제적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근거가 가장 많은 주에서 활용된다. 우선, 모성사망의 위험도가 높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주는 과나후아또, 게레로, 이달고, 께레따로 주이다. 멕시코시티, 이달고, 할리스꼬, 미초아칸, 나야리트, 누에보레온, 따마울리빠스, 플라스칼라, 싸까떼까스 주는 모성사망의 위험성뿐 아니라 임신이 여성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도 낙태를 허용한다. 두 경우에다가 태아가 기형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주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꼬아우일라, 꼴리마, 치아빠스, 멕시코시티, 게레로, 멕시코주, 모델로스, 오아하카, 뿌에블라, 키타나로, 베라크루스, 유까탄 주이다. 셋째의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는 주는 유까탄 주로서, 이 주의 여성들은 최소 세 명의 자녀를 가져야 하며 한 명을 더 부양할 경제적 자원이 없을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그리고 멕시코시티와 모델로스 주는 낙태에 대해 가장 개방적 입장을 보이며 첫째의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속한다(Ubaldi 2003, 165-166). 요약하면, 멕시코시티와 31개 주에서 낙태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만 공통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29개 주에서 낙태는 '유죄'로 처벌되며, 27개 주에서는 산모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며, 13개 주에서는 태아가 심각한 기형일 때, 10개 주에서는 여성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때 낙태가 허용된다(Cevallos 2007).

이상과 같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낙태를 다른 대륙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며 현재까지도 사회적 금기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낙태시술 빈도는 다른 대륙에 비해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낙태시술 빈도가 오히려 낮다는 점은 낙태합법화와 낙태시술 빈도가 정비례하지 않음을 잘 입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낙태합법화 여부보다는 성교육의 부재, 피임법에 대한 무지, 부성애 결핍, 통합적 건강보호체계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낙태시술 빈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Bengoetxea and Gabe 2007).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매년 약 4백만 건의 낙태가 시술되며,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불안정한 낙태로 사망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의 30-40%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다(Cevallos 2007). 세계재생산권리여성연대(RMMDR: Red Mundial de Mujeres por los Derechos Reproductivos)는 불안정한 낙태가 세계 여성사망의 세 번째 원인이며, 매년 약 6만8천명의 여성이 잘못 시술된 낙태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매년 2억1천1백만 건의 임신 가운데 약 4천6백만 건이 낙태로 마무리되며, 이 중 60%만이 안전한 조건 하에서 시술되고 있다. 그리고 10건의 임신 중 1건은 불안정한 낙태시술로 이어지며, 그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세계에서 불안정한 낙태의 1/4인 약 2천만 건의 낙태가 15-19세 여성들에게서 발생한다(Cerigua 2007). 멕시코 경우도 낙태는 이미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2005년에 1백만의 여성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스런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산출되긴 어렵지만, 멕시코시티에서 모성사망의 1/3이 불안정한 낙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ilva 2007). UNAM의 연구에 따르면, 1억4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에서 매년 백만 건 이상의 비밀스런 낙태가 시술되며, 이는 전체 임신의 30%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더욱이 낙태가 허용되는 극소수 경우에도 낙태시술을 위한 인가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Cevallos 2007).

III. 멕시코 여성운동에서 낙태 쟁점의 등장과 발전

III.1.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낙태합법화 운동

멕시코에서 낙태합법화 운동은 1970년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 들어 '자발적 모성' 권리로 목표 전환을 보인 후, 1990년대 본격적인 낙태합법화 과정에 들어가며, 2007년 4월 멕시코시티 시의회에서 낙태합법화 및 비범죄화가 승인되기에 이른다.⁴⁾

1970년대 낙태합법화 운동을 주도한 멕시코의 신(新)페미니즘⁵⁾은 1968년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의 잔인한 탄압, 오랜 국가정당의 통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족윤리에 대한 불만 등의 국내적 배경과,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히피운동의 등장, 쿠바혁명의 영향 등과 같은 국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등장하였다(Careaga 2002, 144; 강경희 2008a, 86). 멕시코시티 출신의 중산층여성들로 구성된 신페미니스트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좌파적 정치성향을 가진 비판적 대중에 속했다. 특히, 1968년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틀라텔롤코(Tlatelolco) 학살사건을 경험한 여대생들은 이후 역사적 재건과정에서 여성들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저평가되었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Tarrés 2007, 126). 또한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정치행태와 정치적 대표성 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소규모의 의식화 그룹이나 연구회 활동을 통해 성폭력, 낙태법, 정치참여 등과 관련된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Parren 2006, 40).⁶⁾ 이 여성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열망

4) 멕시코 페미니스트운동사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언급은 1915년 유카탄 주 메리다에서 개최된 '제1차 페미니스트대회'를 준비하면서 갈린도(Hermila Galindo)가 작성한 "La mujer del porvenir(미래의 여성)"이라는 문건에서 나타난다. 갈린도는 이 대회 개회사에서 낙태와 매춘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는 여성참가자들 사이에서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페미니스트들조차 낙태와 매춘은 침묵해야 할 쟁점으로 보았다(Careaga 2002, 143-144). 1936년 들어 도밍게스(Ofelia Domínguez Navarro) 박사는 멕시코에서 최초로 낙태 금지를 규정하는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Ubaldi 2008, 7-8).

5) 멕시코의 신페미니스트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희 2008a를 참조할 것.

하며 반문화 의식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 성적 자유 등과 같은 서구페미니즘의 이념들을 새로운 조류로 수용하였던 것이다(Espinosa 2002, 160).

낙태합법화 승인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1976년 페미니스트여성동맹(Coalición de Mujeres Feministas)에 의해서였다. 정부도 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국무부 산하 전국인구위원회(CONAPO: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에 멕시코낙태연구를 위한 학제간 그룹(Grupo Interdisciplinario para el Estudio del Aborto en México)을 구성했다. 연구 결과, 이 위원회는 낙태시술을 받는 여성과 시술자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으나(Ubaldi 2008, 7-8), 의회는 이 제안과 페미니스트여성동맹이 제출한 낙태합법화 법안을 거부했다.

1979년 창설된 여성자유권리국가전선(Flalidm: Frente Nacional por la Liberación y los Derechos de las Mujeres)은 페미니스트여성동맹과 함께 두 번째로 낙태합법화 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했으나, 또다시 거부되었다. 이 조직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노동조합과 좌파정당 소속의 여성 등으로 구성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단일조직이었다. 그러나 낙태합법화 법안이 우파 정치세력과 가톨릭교회의 압력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거부되자, 페미니스트여성동맹은 해체되었고, 여성자유권리국가전선은 분열되었다(FLACSO).

두 번째 낙태합법화 시도가 실패한 후, 멕시코의 신페미니스트운동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낙태합법화라는 쟁점은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아직 낯설고 불편한 주제였고, 이 주제에 대한 거부감은 실패

6) 1970년대 멕시코의 신페미니스트 소그룹들은 연구활동 외에도 영화제작, 잡지발간 등 문화운동을 통해 낙태라는 주제에 접근했다. 대학영화연구센터(CUEC: Centro Universitario de Estudios Cinematográficos) 소속 여학생들로 구성된 Cine Mujer라는 소그룹은 낙태, 가사노동, 성폭력, 매매춘 등을 다룬 16밀리 단편영화를 제작하였다. 낙태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로는 1975-1978년 상영된 Rosa Marta Fernández의 <Cosas de mujeres>가 있다. 또한 당시 발간된 대표적인 신페미니스트 잡지로는 *Fem*을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멕시코의 성차별 문화를 비판하는 시각을 확산하며, 여성의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널리 알리는 한편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기 15권까지 다루었던 주요 테마는 낙태, 노동, 섹슈얼리티, 언어와 성차별주의, 가족, 여성 소설, 가사서비스 등이었다(Lamas 2007, 56-57).

미니스트운동 자체의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당시 멕시코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대항해 투쟁하고 낙태옹호론자이며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페미니스트 단체들조차 낙태라는 쟁점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여성운동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낙태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를 주저하였다(Espinosa 2002, 164).

또한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운동은 소그룹의 의식화 운동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광범위한 논의 주제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룹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섹슈얼리티를 목표로 하는 투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섹슈얼리티 논의는 멕시코의 모든 여성을 소그룹 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극소수 레즈비언 여성들의 보호와 권리회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초의 여성 단일조직인 여성자유권리국가전선(Flalidm)의 경우, 전국대회 결의안들에서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유로운 섹슈얼리티’를 강조했다. 그러나 두 개의 동성애자 혼합그룹이 이 조직에 참여하자 멕시코여성연맹(Unión de Mujeres Mexicanas)과 민주성향여성위원회(Comités Femeniles de la Tendencia Democrática) 등은 탈퇴를 선언했다(Careaga 2002, 145-148). 결국,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들의 낙태합법화 운동은 정치과정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낙태요구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도 단일한 행동전략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급진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신페미니스트운동은 주로 개인의 실천영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투쟁’으로서의 페미니스트운동으로 발전되지 못했다(Lamas 2002, 74).

III.2. ‘자발적 모성’권리로서 낙태합법화 운동

“내 몸은 나의 것이다.”를 모토로 하는 1970년대 낙태합법화 운동과는 달리 1980년대 멕시코의 낙태합법화 운동은 여성의 선택, 사회정의, 공공보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자발적 모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낙태권 제한이 극빈층여성에게

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자율권 개념보다는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서비스로의 접근 가능성 등과 같은 폭넓은 쟁점들을 포괄하는 자발적 모성 개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겼다(Casas 2008, 4).

이러한 경향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낙태 범죄화·비합법화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논리는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페미니스트 구호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권, 생명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정의 개념이 이 지역 낙태합법화 운동과 더 친밀하게 결합되었다.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 인정이나 여성의 자율성 쟁점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마찰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반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여성자신의 권리 주장이 낙태와 관련된 논의에서 더 설득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자율성이나 재생산권리에 호소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사회부문의 연대를 가로막는 경향이 있으며, 생명의 존엄성 관점을 주장하는 낙태반대론자들과도 끊임없는 분쟁을 초래한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바티칸과 가톨릭교회는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도입과 이에 따른 여성의 자기 결정적 출산조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여성의 사생활보호나 국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건강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Casas 2008, 2).

멕시코는 1982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헌법 4조가 1979년 이후 남자와 여자에게 공히 자녀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현실에서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González 1992). 이러한 현실은 멕시코에서 낙태권이 신페미니스트운동에서나 1980년대 이후 확대여성운동에서나 주요한 활동목표로 설정되도록 하였다(강경희 2008b). 특히, 198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멕시코시티에서는 낙태합법화 쟁점이 ‘페미니즘’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여타 사회집단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해결해

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Ubaldi 2008, 10).

멕시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부유층 여성들은 낙태하고 빈곤층 여성들은 죽는다.”라는 말은 낙태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 영역에서 다뤄져야함을 간접적으로 역설한다. 이 말은 부유층여성들은 비밀스런 낙태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고비용을 지불하여 사회적 금기를 비켜갈 수 있는 반면, 빈곤층여성들은 위험한 자가 인공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비유하는 것이다(Peirce 2007). 멕시코시티를 예로 들어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14%가 이 도시에서 시술되며, 2006년에만 6만 건의 낙태가 실시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 낙태는 모성사망의 세 번째 이유이며 매일 547-548명의 여성이 낙태를 시술받고 있다. 그런데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80%가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낙태를 시술받는 여성의 26%가 15-20세의 사춘기여성들이고, 30%가 21-25세이고 25%가 26-30세이다. 이와 같이 멕시코시티의 상당수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시술받는다든 점에서 공공보건 문제와 공공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즉, 낙태를 결정할 때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여성 대부분이 빈곤층이라는 점과 비밀스런 낙태 실시가 여성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멕시코시티에서 낙태 문제는 사회정의와 공공보건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Gómez 2007; Ubaldi 2008, 8-9).

IV. 국가의 공공정책 차원에서 낙태 쟁점의 수용

IV.1. ‘빠울리나(Paulina)’ 사건과 낙태논쟁의 촉발

멕시코에서 낙태합법화 논의가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경우 학계, 기자, 변호사, 여론형성자, 입법부의원, 의사, 공무원, 작가, 예술

인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낙태합법화 논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사회정의와 공공보건 차원에서 낙태합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Ubaldi 2008, 7-8). 여성NGO, 학계, 정부기관의 여성 연대는 1993년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Red por la Salud de las Mujeres del Distrito Federal)의 창설로 정점을 맞았다. 이 조직은 6개의 NGO(APIIS, SIPAM, GIRE, CIMAC, COVAC, CECOVID)와 1개의 민간연구단체(Instituto Mex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주도로 창설되어 5년 후인 1998년에는 19개 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조직은 주로 여성보건문제를 다루지만, 남성성을 연구하는 CORIAC라는 단체도 가입해있을 정도로 다양한 성향의 소속단체들을 갖고 있다.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은 낙태의 탈범죄화, 자녀수와 터울의 자유로운 결정, 여성의 동의 없는 위험한 피임법 상황에 대한 고발, 성폭력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쟁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Cardaci 2002, 90-93).

1990년대 말 이후 멕시코에서는 본격적인 낙태합법화 논쟁이 촉발되는데, 그 계기는 1999년에 발생한 소위 ‘빠올리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멕시코 낙태법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빠올리나(Paulina del Carmen Ramírez Jacinto)는 사건 발생 당시 13세의 어린 소녀로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메히칼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형법은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빠올리나와 그녀의 가족은 낙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메히칼리 공무원들은 그녀와 가족의 낙태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쓰며 설득했고, 결국 빠올리나는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그녀의 가족은 미주인권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los Derechos Humanos)에 주정부를 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6년 후인 2005년 12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는 ‘빠올리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GIRE 2005). 빠올리나 사건은 멕시코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연관관계에 대한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빠울리나 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에 힘입어 2000년 8월, 보수 정당인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이 집권한 과나후아또 주의 주의회가 성폭력으로 임신한 경우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려고 시도하자, 관련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권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히 연대, 대처하였다. 또한 2001년 시날로아 주에서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한 여아의 소송 건이 있었는데, 여아의 어머니는 딸의 낙태를 주장하며 지역 언론에 호소했다(Ubaldi 2003, 167).

빠울리나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낙태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세와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는 데 있다. 국민행동당은 낙태법 폐지를 시도했던 과나후아또 주 선거에서 패배했고, 멕시코시티에서는 성폭력에 따른 임신의 합법적 낙태를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과나후아또와 멕시코시티의 두 사례는 낙태합법화 전략이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권력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사회적 정의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Casas 2008, 5-6).

IV.2. 2000년과 2003년의 멕시코시티 낙태법 개정

2000년 낙태법 개정

2007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낙태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승인되기 전에 2000년과 2003년에도 낙태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1999년 멕시코시티 형법과 민법의 통합개정 과정에서 40여개 NGO로 구성된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Red por la Salud de las Mujeres)은 산모 건강이 위협할 경우, 태아에게 기형이 발견될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낙태를 합법화할 목적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멕시코는 민주적 이행과정에 접어들었고, 자발적 모성을 지지하는 민주혁명당(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이 멕시코시티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의 합법화와 입법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2000년 7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은 지지율 상실이라는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낙태’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국민행동당의 대통령후보인 폭스(Vicente Fox Quesada)는 1999년 *Proceso* 잡지에서 “산모생명의 위협이 분명한 경우와 태아가 뇌사상태일 경우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선거가 임박해서 그는 “나는 착상이 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믿는다. (...) 나는 착상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권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Ubaldi 2003, 169). 민주혁명당과 대통령후보 까르데나스(Cuauhtémoc Cárdenas Solórzano)도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이 제시한 낙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공식적인 자문도 구하지 않았으며 낙태법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주혁명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까르데나스 시장의 후임으로 로블레스(Rosario Robles Berlanga)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멕시코시티 시장 직에 오르자, 묵혀있던 낙태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되었다. 소위 ‘로블레스 법안’이라 불리는 낙태법 개정안은 로블레스 시장이 직접 제출했는데, 시장은 1999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멕시코시티여성보건망의 NGO들과 직접 협상을 단행했다. 2000년 8월 18일,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로블레스 법안’을 찬성 41표(민주혁명당 33, 제도혁명당 5, 노동자당 3)와 반대 7표(국민행동당), 기권 1표(국민행동당)로 통과시켰다. 2000년의 낙태법 개정에 따라 멕시코 시티에서는 태아가 심각한 선천적·유전적 기형이 있을 때, 산모건강이 심각한 위험상태에 있을 때, 임신이 합의되지 않은 인공수정이었을 때에 한해서 합법적 낙태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민행동당과 멕시코녹색환경당(PVEM: 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은 2000년 개정된 낙태법이 공포된 지 한 달 만에 이 낙태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1년 4개월 후인 2000년 1월, 멕시코 대법원은 2000년 개정 낙태법이 ‘비합헌’이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멕시코시티 여성보건망의 NGO들은 낙태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법부라는 최고사법기관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NGO들은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 단체들을 낙태합법화 운동에 편입시키고, 낙태라는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의뢰하였다(Ubaldi 2008, 13-17).

2003년 낙태법 개정

2003년 낙태법 개정안은 제도혁명당 소속 여성의원인 구띠에레스(Norma Gutiérrez de la Torre)에 의해 제출되었다.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2003년 12월 26일, 형법 개정안을 승인하고 멕시코시티 보건법 추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혁명당, 국민행동당, México Posible 정당(Alternativa Socialdemócrata의 전신)이 추가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제도혁명당과 멕시코녹색환경당은 각각 반대와 기권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 12주까지의 낙태합법화라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낙태를 시술한 의사가 처벌되도록 하는 등의 모순적인 부분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03년 낙태법 개정안은 2000년의 개정안보다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2004년 3월 이후 여성단체,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은 낙태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슬로건으로서 “성폭행에 따른 낙태는 합법적이다(El aborto por violación es legal).”라고 외치기 시작했다(Ubaldi 2008, 18-21).

2003년 낙태법 개정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당이라 할 수 있는 México Posible 정당이 시의회 논의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México Posible 정당은 1999년 연방선거위원회(IFE: Instituto Federal Electoral)에 등록된 정치단체인 Diversa에 의해 창당되었다. 당시 1만5천명 이상의 회원 보유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32개 정치단체가 합법적 등록을 마쳤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주도하는 정치단체는 Diversa, Mujeres y Puntos, Diana Laura, Mujeres en Lucha 등 4개였다. 빠뜨리시아 메르까도(Dora Patricia Mercado Castro)⁷⁾가

7) 빠뜨리시아 메르까도는 소노라 주 출신으로 UNAM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이끄는 *Diversa*는 낙태 비범죄화, 성 및 재생산 보건에 대한 주의, 인권 존중 등 페미니스트 쟁점들과 성적 소수자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Diversa*는 2000년 연방선거에 사회민주주의정당(*Partido Democracia Social*)을 결성하여 참여하였으나 정당 유지에 실패하고, 2002년 총선에서는 *México Posible* 정당을 창당하여 빠뜨리시아 메르까도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웠으며, 2003년 중간선거에도 나섰으나 정당유지에 필요한 최소득표에 실패하여 정당등록 권한을 잃었다(Lamas 2007, 71). *México Posible* 정당은 2003년 중간선거에서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25명의 후보를 내세워 멕시코시티, 띠후아나, 과달라하라, 오아하카, 께레파로, 메리다 주에서 출마하였다(Archundia 2003). 이 과정에서 이 정당은 당강령으로 낙태의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내세움으로써 가톨릭주교들의 반대투표 운동에 직면했고, 이들과 대립하면서 명성을 얻었다(Wikipedia(a)).

빠뜨리시아 메르까도를 비롯한 *México Posible* 정당의 다수 당원들은 대안사회민주정당(*Partido Alternativa Socialdemócrata y Campesina*) 창당을 주도하여 2005년 1월 정당등록을 마쳤다. 빠뜨리시아 메르까도는 2006년 7월 2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2005년 8월 20일 사임할 때까지 초대 당대표를 역임했다. 대선 결과, 그녀는 2.70%인 1,128,850표를 획득하여 정당 유지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인 2%를 넘음으로써 정당등록이 성사되었다(Wikipedia(b)). 대안사회민주정당은 2007년 멕시코시티 시의회에서 낙태합법화가 승인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후, 2008년 사회민주당(*Partido Socialdemócrata*)으로 개칭되면서 세계화 시대 사회적 의미를 가진 자유시장 정책, 소수자 및

1970년대 말 학부과정을 수학하는 동안 혁명노동자당(*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에 가입했다. 1985년 멕시코시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그녀는 *Mujeres Trabajadoras Unidas, A.C.*와 *Mujeres en Acción Sindical(MAS)*등과 같은 NGO에서 활동했다. 이 NGO들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하는 단체였다. 이후 빠뜨리시아 메르까도는 사회민주주의정당(*Partido Democracia Social*) 창당을 주도하여 2000년 연방선거에 참여했다. 이 정당은 성평등, 가정폭력뿐 아니라 낙태 비범죄화, 마리화나와 동성결혼의 비범죄화 등과 같이 멕시코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는 현대적 좌파의 주장들을 공공의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3년 연방선거에서 인중 획득에 실패해 당은 해체되었다(Wikipedia(b)).

동성애자 권리, 뇌사·낙태·마약의 합법화,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에너지 확산 등을 새로운 당강령으로 내세웠다(Wikipedia(c)).

IV.3. 2007년 낙태법 개정안 통과

2007년 4월 24일,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임신 초기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합법화·비범죄화를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11월 23일 제도혁명당 소속 의원인 토나티우(Armando Tonatiuh González)에 의해 제출되었고(Ubaldi 2008, 7),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찬성 46표, 반대 19표, 기권 1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보수적 성향의 여당인 국민행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2007년 개정된 낙태법의 비합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다(Jacobelli 2007). 시의회 의원들이 7시간에 걸쳐 낙태법 개정안 논쟁을 지속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이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양측을 에워쌌다.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신문과 TV의 광고, 거리의 전단, 시위대의 알림장을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2007년 낙태합법화 법안에 대해 가장 격렬히 반발한 단체는 극단적 보수성향의 ProVida였다. 심지어 이 단체는 “죽음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오늘의 낙태는 내일의 안락사, 그 다음에는 마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을 봉쇄하고 시술장치의 연결을 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TeleSUR 2007). ProVida를 비롯한 Dignidad Humana, Red Familiar 등 보수단체들은 낙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임제 이용, 동성간 결혼, 안락사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 단체들은 이른바 ‘por la vida’(생명을 위한) 행진을 주도하며 낙태합법화에 찬성하는 PRD 시의원들에게 전화로 살해협박을 하기도 했다(Silva 2007). 또한 이 보수단체들은 낙태 “합법화 결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7만 명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했다(Cevallos 2007).

로마교황청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멕시코시티의 낙태법 승

인을 우려하는 편지를 법안 통과 일주일 전에 멕시코 주교회회의에 전달했다. 멕시코 주교단은 법안을 제출한 시의원들을 즉각 제명 조치했고, 주교 대표인 아가아르(Carlos Aguiar)는 2008년 8월 대법원의 낙태법 합헌성 판결 직전의 일요일에 텔레비사(Televisa) 방송에 출연해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렸다(Pulsar and La Jornada 2008). 또한 멕시코 주교단은 헌법 14조를 근거로 “어떠한 생명도 박탈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여성연구소(Instituto de Mujeres del Distrito Federal)는 헌법 4조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녀수와 터울 조절을 자유롭게 책임 있고 정보를 가진 속에서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낙태권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태아의 신경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TeleSUR 2007).

낙태옹호론자들은 멕시코에서 낙태를 시술받는 여성 대부분이 어머니, 기혼자, 가톨릭교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멕시코에서 낙태는 가톨릭교도이든 아니든, 환웃을 입고 행진하든 안하든, 낙태법이 있든 없든, 전화를 통한 협박과 논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라는 것이다(Gómez 2007). 또한 낙태옹호론자들은 보수단체들이 태아생명은 존중하면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매년 잘못 시술되는 낙태로 인해 사망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ilva 2007). 또한 낙태옹호론자들은 2007년 이전에 멕시코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낙태에 대해 1-6년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2000-2006년에 겨우 28명의 여성들만 기소되었고 그 가운데 14명만이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낙태 범죄화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음을 주장한다.

한편, 가톨릭단체들 중에서도 낙태옹호론자들이 등장하였다. ‘결정권을 지지하는 여성가톨릭교도들(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이라는 가톨릭여성조직은 42개 가톨릭단체의 참여로 2002년 4월 결성되었는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6개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 2개 유럽국, 캐나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적 성격의 국제기구이다. 이 조직은 바티칸과 가톨릭교회의 위계적 질서 하에서 취약한 여성층의 섹슈얼리티, 재생산권리, 낙태권과 종교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에 대한 이 조직의 전향적 자세는 페미니스트운동이 가톨릭교회와 양립할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Lamas 2004). 다른 한편, ‘결정권리를 지지하는 전국 가톨릭청년교도들의 망’(Red Nacional Católica de Jóvenes por el Derechos a Decidir)은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 가톨릭교회, 로마교황청과 멕시코시티 정부, 의회, 시민단체들 사이에 유발된 논쟁을 바라보며, 가톨릭교회가 멕시코 사회에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López 2007).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들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민주혁명당 소속 시의원들은 2007년 낙태법 개정이 낙태를 촉진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합한 입법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시장인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도 시정부는 낙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낙태시술이 안전하지 않으며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브라르드 시장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낙태시술보다는 교육 및 피임법 사용에 관한 교육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Cevallos 2007). 결국, 2008년 8월 28일, 대법원은 2007년 4월 이후 계류 중이던 멕시코시티 낙태법에 대해 찬성표 8, 반대표 3으로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의견서는 임신 초기 태아에 대한 생명권 불인정이라는 멕시코 헌법과 국제협약의 규정이 낙태법 비범죄화 판결의 주된 근거였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의 보건법과 형법 개정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에 따라 멕시코시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한 합법화가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의 합법적 낙태는 위생적 환경에서 무료로 시술될 수 있게 되었다(Púlsar 2008).

V. 결론: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이상에서 본 논문은 2007년 멕시코시티의 낙태합법화·비범죄화 결정과정을 멕시코 페미니스트운동의 역할과 정치적·종교적 논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2007년 멕시코시티의 낙태합법화는 1970년대 이후 30여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운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뜻밖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낙태합법화는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혁명당 후보인 로베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가 보수적 집권 정당인 국민행동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결과 발생한 대중적 분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강경희 2007, 310-313). 만일 이러한 대중적 분노가 없었다면 낙태합법화를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선에서 접전을 거듭한 끝에 나타난 급진적 후보의 아쉬운 패배는 낙태합법화를 주장해오던 소수 시의원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고, 낙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부재했던 민주혁명당 의원들조차 국민행동당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낙태합법화에 찬성하게 되는 기대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Casas 2008, 10-11).

그러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한 ‘뜻밖의 사건’이라는 외적인 요인만 강조하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개인과 단체의 낙태합법화 운동을 간과한다면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합법화 결정에 미친 영향의 내부적 추동력을 간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멕시코의 페미니스트단체들은 1970년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낙태합법화 운동의 한계를 직시하고, 1980년대 이후 사회정의와 공공보건 문제를 포괄하는 ‘자발적 모성’ 권리로서의 낙태합법화 운동으로 전략적 수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수정을 통해 이 단체들은 낙태문제를 정부 공공정책의 한 분야로 끌어올린 다음, ‘빠울리나 사건’을 기점으로 낙태합법화 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의 낙태합법화 운동은 정교화되었고, 2006-2007년의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맞아 낙태의 합법화·비범죄화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7년 멕시코시티 낙태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스페인의 낙태법을 능가하는 몇몇 측면이 눈에 띈다. 멕시코시티 성인여성은 가족이나 배우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낙태결정의 자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항상 무료로 낙태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멕시코시티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출신의 여성들도 멕시코시티 시민과 동등한 자격과 방식으로 합법적 낙태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낙태법이 통과된 후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6,581건의 합법적 낙태시술이 있었고, 이 가운데 14.2%인 932건이 타 지역으로부터 온 여성들을 위해 시술된 것이었다(Ubaldi 2008, 9).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낙태법이 지속성을 갖고 시행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가톨릭교회와 보수단체들, 그리고 로마교황청은 멕시코시티에서 최근 개정된 낙태법을 되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멕시코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주들은 여전히 제한적 차원의 합법적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 멕시코시티는 민주혁명당의 집권 하에 있지만 연방정부는 국민행동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국민행동당도 멕시코시티의 낙태합법화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혁명당으로서는 국내 페미니스트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적 연대를 지속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과 라틴아메리카 대륙 차원에서 공동의 대처를 통해 현재의 낙태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l 24 de abril en 2007, la Asamblea Legislativa de México DF aprobó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durante las primeras 12 semanas de gestación. Sólo Cuba, Puerto Rico y Guyana permiten todas formas de interrupción del embarazo en Latinoamérica. México donde más del

80% de su población se confiesa católica y la voz del Papa Benedicto XVI tiene una fuerza especial enfrenta recientemente la aprobación de la ley de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el DF. Este artículo tiene un interés particular qué elementos permitieron esta despenalización. Por lo tanto, el presente trabajo analiza cómo fue el proceso del feminismo mexicano ante la política del aborto, qué interacción tenía entre el Estado y el movimiento feminista, considerando las características culturales y políticas. Por medio de la investigación, este artículo concluye que fue “un caso casual” la aprobación de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la Asamblea Legislativa del DF, llevado a cabo gracias al descontento de los legisladores del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frente la elección presidencial en 2006. Adicionalmente fue un elemento fundamental el movimiento feminista mexicano que duró casi treinta años en la toma de dicha decisión.

Key Words: Despenalización·legalización del aborto, México, Feminismo, Caso Paulina, Derechos reproductivos / 낙태 비범죄화·합법화, 멕시코, 페미니즘, 빠울리나 사건, 재생산권리

논문투고일자: 2009. 04. 05

심사완료일자: 2009. 04. 29

게재확정일자: 2009. 05. 08

참고문헌

- 강경희(2007), 「멕시코의 정당과 최근 선거」,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pp. 282-313.
- _____ (2008a), 「멕시코의 제2기 여성운동: 신(新)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공존」, 평화연구 Vol. 19, No. 1, pp. 77-107.
- _____ (2008b), 「라틴아메리카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확대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26, No. 3, pp. 467-492.
- 이순주(2003a),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멕시코의 사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6, No. 2, pp. 169-197.
- _____ (2003b),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세종출판사.
- _____ (2004),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칠레의 사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3, pp. 5-31.
- Archundia, Mónica(2003), “Presenta a candidatos gay el Partido México Posible,” *El Universal*, 21 de junio, http://www2.eluniversal.com.mx/pls/impreso/noticia.html?id_nota=51190&tabla=ciudad
- Ávila, Antonio O.(2007), “La ciudad de México abre la puerta a la legalización del aborto,” *El País*, miércoles 25 de abril, http://www.redaccionmedica.com/revista_prensa/archivo/20070425/elpepi_40@45%202.pdf
- Bengoetxea, Edurne and Mugarik Gabe(2007), “Más de 10 mil mujeres mueren cada añ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or abortos 28 de Septiembre: Día por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8 de noviembre,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56879>
- Cardaci, Dora(2002), “Visibilidad y protagonismo de las redes y ONG en el campo de la salud,”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 *Feminista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 crítica del*

-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83-96.
- Careaga Pérez, Gloria(2002), "La lucha por el placer: Crónica de un movimiento que continúa,"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 *Feminista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 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143-154.
- Casas Becerra, Lidia(2008), "My Body Is Not Really Mine," SELA, pp. 1-19,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sela/Casas.pdf>
- Cerigua(2007), "Los abortos inseguros son la tercera causa de muerte en el mundo," Julio 13,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53510>
- Cevallos, Diego(2007), "México: El aborto ya no es delito en la capital," IPS Federación de Servicios Financieros y Administrativos, 25 de abril, www.comfia.info/noticias/pdf/34026.pdf
- Espinosa, Gisela(2002), "Los rezagos y los retos para el feminismo y los movimientos de mujeres,"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 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157-177.
- FLACSO, "Organizaciones sociales de mujeres," <http://www.eurosur.org/FLACSO/mujeres/mexico/orga-1.htm>
- Franco, Jean(2003), "Deponer a El Vaticano: el proyecto secular del feminismo," *Debate Feminista*, No. 14-27, abril, pp. 28-44.
- GIRE(2005), "Caso Paulina: El gobierno de BC admite responsabilidad," <http://www.gire.org.mx/contenido.php?informacion=77>
- Gómez Quintana, Ma. Guadalupe(2007), "México: Los conservadores crisan el ambiente por una nueva causa de aborto," CIMAC, 27 de marzo,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48707>
- González M., Lucero(1992), "La penalización del aborto en México," *Política y Cultura*, No. 1, Otoño, pp. 49-55, <http://www.xoc.uam.mx/~polcul/pyc01/49-55.pdf>
- Iacobelli, Donatella(2007), "Despenalización del aborto y planificación familiar: asuntos pendientes de la Revolución Bolivariana,"

- Aporrea*, 8 de mayo,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50592>
- Lamas, Marta(2002), "Fragmentos de una autocrítica,"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coorda.), *Feminista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a 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71-79.
- _____(2003), "Aborto, derecho y religión en el siglo XXI," *Debate Feminista*, No. 14-27, abril, pp. 139-164.
- _____(2004), "Católicas, Aborto e Iglesia," *Periódico Diario Monitor*, 30 de octubre,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6937>
- _____(2007), "Las mujeres en el México del siglo XX -Una cronología mínima," in Marta Lamas(coorda.), *Miradas feministas sobre las mexicanas del siglo XX*, México: FCE, Conaculta, pp. 21-75.
- López Sosa, Fabiola(2007), Observatorio ciudadano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Academia Mexicana de Derechos Humanos A.C, Síntesis de Noticias del Mes de Abril, <http://www.amdh.org.mx/mujeres/noticias/Sintesis/4.pdf>
- Mazur, Amy G(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ren. Franny(2006), "Tenemos que despertarlas: A study on the Effects of Informal Education on Women's Rights on Processes of Empowerment of Indigenous Women in Chiapas, Mexico," Master Thesis in Development Studies, Centr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August, pp. 1-132.
- Peirce, Jen(2007), "La lucha por el aborto seguro en América Latina," ZNet, 19 de octubre, Traducido por Chelo Ramos,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57849>
- Púlsar(2008), "Suprema Corte considera constitucional a la ley de aborto de México DF," 30 de agosto,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71972>

- Púlsar and La Jornada(2008), "Justicia de México analiza iniciativa contra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27 de agosto,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71867>
- Silva Victoria, Leda(2007), "México: Aborto: Por el derecho a decidir," 3 de abril,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49083>
- Tarrés, Marí Luisa(2007), "Discurso y acción política feminista(1970-2000)," in Marta Lamas(coorda.), *Miradas feministas sobre las mexicanas del siglo XX*, México: FCE, Conaculta, pp. 113-148.
- TeleSUR(2007), "El Congreso del Distrito Federal aprobó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25 de abril,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50139>
- Ubaldi Garcete, Norma(2003), "Sobre aborto y políticas públicas," *Debate Feminista*, No. 14-27, abril, pp. 165-179.
- _____ (2008), *El proceso de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la Ciudad de México*. México: GIRE(Grupo de Información en Reproducción Elegida, A.C.), http://www.gire.org.mx/publica2/ProcesoDespen_Temas7_2008.pdf
- Wikipedia(a), "México Posible," http://es.wikipedia.org/wiki/M%C3%A9xico_Posible
- Wikipedia(b), "Patricia Mercado," http://es.wikipedia.org/wiki/Patricia_Mercado
- Wikipedia(c), "Partido Socialdemócrata," http://es.wikipedia.org/wiki/Partido_Alternativa_Socialdem%C3%B3crata